

[6·3대전] 허태정 '민생·현장' vs 이장우 '민선8기 성과 부각'...표심잡기 호소

등록 2026.05.17 17:57:49



[대전=뉴스시스] ㅈ조명휘 기자 = (위)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지방선거 출마자 등과 16일 중구 우리들공원 일대에서 거리청소 봉사활동을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가 17일 선거사무소에서 지역 민주화운동 및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지선언을 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각 선대위 제공) 2025.05.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스시스] 조명휘 기자 = 여야 대전시장 후보들이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맞은 첫 주말동안 얼굴 알리기와 지지세 확산에 주력했다.

17일 각 선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민생'과 '현장'에 초점을 둔 행보를 전개하면서 지지자 표심잡기 활동을 펼쳤다.

로타리클럽 산악회와 식품안전 마라톤대회, 5월 평화시민문화제, 여성노조 대전충청지부, 모교인 충남대 개교 행사장 등을 돌거나 거리 청소봉사 활동을 벌이면서 얼굴 알리기와 함께 지지를 호소했다. 지방의원 출마자 선거캠프 개소식도 여러 군데 돌면서 당원·지지자간 결속도 다졌다.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중구협회장기 축구대회와 라이온스협회 지구연차 회원대회, 종교단체 체육대회 행사, 전통시장, 청년모임 행사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고, 유튜브를 통해 민선 8기 성과와 7기 실정을 비교하는 여론전도 전개했다.

각 후보 선대위는 선거운동원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21일 시작되는 공식선거운동에 대비한 전열정비도 벌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